“귀여운 얼굴인데 … 공포감 줬다면 다행”

‘기생충’ 배우 이정은

팔색조 연기로 강렬한 인상
북한 아나운서 따라하는 연기
틈나는 대로 오랜 기간 연습
신나고 재밌고 즐겁게
이상한 작품 연기해 좋았다

“봉준호 감독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제가 들어간 덕분이죠.”

영화 ‘기생충’을 보고 나면 배우 이정은(49)의 연기가 오랫동안 뇌리에 남는다. 엄청난 에너지와 팔색조 연기로 혼을 쏙 빼놓기 때문이다.

박사장네 입주 가사도우미 문광을 연기한 그는 후반 재등장과 동시에 극 분위기를 전환하며 강렬한 후반전을 이끈다.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이정은은 한동안 못다 한 영화 이야기를 호탕하게 풀어냈다.

그는 남편 근세 역을 연기한 박명훈과 함께 반전의 핵심 키를 쥔 인물이기에 한동안 언론 노출을 피해왔다가 누적 관객 700만명이 넘으면서 취재진을 만났다.

이정은은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봉준호 감독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제가 들어간 같다. 캐릭터를 맡은 것도 행운”이라면서 “이런 것에 맛 들이면 안 되는데, 중독되면 어떡하느냐”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극 중 출연하는 장면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특히 박사장네 집에서 쫓겨났다가 비 오는 날 밤 얼굴에 상처가 난 채 찾아와 현관 인터폰 앞에서 펼치는 연기는 그야말로 일품이다.

“대본에는 제가 약간 취중으로 나오는데, 취중이면서도 예의 바르게 보이도록 연기했어요. 저는 그 대목이 웃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섬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그의 얼굴에 난 상처를 두고 관객들 사이에선 해석이 분분하다. “사채업자에게 맞았을 수도 있고, 남편을 두고 왔으니 복잡한 심경에 술을 먹다가 누구와 싸우다 맞았을 수도 있죠. 봉 감독님께서는 ‘얼굴이 많이 부어있다. 맞은 느낌이다’라는 정도만 디렉션을 주셨어요. 봉 감독님은 인물 배경에 대해선 모호하게 답을 주시는 편이에요.”

그가 지하실 문을 열기 위해 벽과 가구 사이에 가로로 매달려있는 장면 또한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는 “사실 와이어의 도움을 받았다”면서 “촬영 몇달 전부터 액션 스쿨에서 테스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혈압이 올라가 잠시 촬영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이정은은 극 중 북한 아나운서를 따라하는 연기도 선보인다. 그는 “감독님이 주신 관련 자료를 보면서 꽤 오랜 기간 틈나는 대로 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부가 지하벙커에서 무슨 놀이를 했을까를 생각했다”면서 “세상 물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여기서 두더지처럼 살고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식 농담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연기했다”고 되짚었다.

이정은은 봉 감독과 이번에 세 번째 호흡을 맞췄다. ‘마더’(2009)에도 얼굴을 비쳤고 ‘옥자’(2017)에서는 슈퍼돼지 옥자의 울음소리를 연기했다.

“감독님이 이상한 것 많이 시키세요. 그래도 저는 ‘신나고 재밌고, 즐겁게, 이상한 작품을 같이 하자’고 제안할 때가 좋더라고요. 배우들은 연기할 때 ‘맞나 틀렸나’를 생각하며 갈등하는데, ‘기생충’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연기하게 되더라고요. 전적으로 감독님을 신뢰한 거죠.”

봉 감독은 이정은을 두고 “목소리의 마법사이자 달인”이라고 칭찬한 바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 맞춤형·팔색조 연기 펼친 이정은

연극무대에서 오랜 기간 조연출을 한 이정은은 1991년 연극 ‘한여름 밤의 꿈’으로 데뷔해 30년 가까이 연극 및 뮤지컬 무대와 스크린, 안방극장을 오가며 내공을 쌓았다.

2013년부터 수많은 드라마에 감초 역할로 출연했지만, ‘기생충’에서는 ‘서브 여주인공’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줬다.

tvN 주말극 ‘미스터 션샤인’(2018)에서 애기씨 고애신을 엄마처럼 돌봐주는 함안댁으로 사랑받으며 ‘함블리’라는 별명도 얻었다. tvN ‘아는 와이프’, JTBC ‘눈이 부시게’ 등 드라마에서도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다.

‘기생충’의 성공은 그에게 자신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안겨줬다.

“제가 사실 귀여운 상이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공포를 느낄 수 있을까가 초미의 관심사였죠. 지금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너무 귀여운데…’ 이런 걱정이 드네요. 하하” /연합뉴스

2PM 찬성 입대…“택연·닉쿤·준케이 배웅”

그룹 2PM 멤버 겸 연기자 찬성(29)이 11일 현역 입대했다.

찬성은 이날 오후 팀 멤버인 택연과 닉쿤, 준케이의 배웅을 받으며 경기도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했다.

2PM은 공식 SNS를 통해 “끝까지 유쾌했던 2PM의 영원한 막내 찬성! 건강히 다녀오세요! 우리 울지 말고 기다려요, 핫티(팬클럽명이 핫티스트)!”란 글을 올렸다.

이어 “휴가까지 써서 배웅 나온 맏형(준케이), 막내 간다는 생각에 새벽에 잠이 깼다는 둘째 형(닉쿤), 막내 얼굴 보고 배웅하려고 전역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군에 찾아온 셋째 형(택연)”이라며 찬성과 배웅한 세 멤버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2PM 막내인 찬성은 팀에서 마지막으로 입대했다. 택연은 지난달 16일 제대했으며 준케이, 우영, 준호가 군 복무 중이다. 태국 출신 닉쿤은 2009년 추첨 징병제를 운용하는 고국에 추첨하러 갔지만 입대 정원이 차 면제 판정을 받았다.

찬성 입대 배웅한 2PM 멤버들(왼쪽부터 택연, 준케이, 찬성, 닉쿤)

찬성은 2008년 2PM으로 데뷔해 ‘10점 만점에 10점’, ‘어게인&어게인’(Again & Again), ‘하트비트’(Heartbeat) 등의 히트곡을 냈다. 또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KBS 2TV ‘7일의 왕비’, JTBC 드라마 ‘욱씨남정기’ 등에서 연기자로도 활동했다. /연합뉴스

스타의 이사로 읽는 부동산…김용만-장윤정의 ‘이사야사’

TV조선 오늘 밤 11시 첫방송

TV조선은 오는 12일 밤 11시 새 프로그램 ‘부동산 로드-이사야사’를 선보인다고 11일 예고했다.

‘이사야사’는 스타의 이사 여정을 통해 그의 인생 이야기는 물론 각 집에 얽힌 경제적 비밀과 부동산 팁까지 담아내는 경제 프로그램이다.

진행을 맡은 김용만과 장윤정은 첫 녹화 이후 “유쾌하고 즐겁고 더불어 많은 부동산 정보를 얻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스타들 인생이 담긴 이사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프로그램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제작진은 “투기성 정보로 부동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봄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단, 하나의 사랑(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내 친구 코리리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봄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다큐 공감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야생여정(재)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30 구해줘! 홈즈 1~2부 스페셜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2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Q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봄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10’ 55 오늘밤 김제동	00 단, 하나의 사랑	05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00 절대 그이
11	35 UHD 숨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재)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재)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로보카 폴리
07:15 꼬마버스 타요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페파 피그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몬카트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4
09:00 마샤와 곰
09:30 원더볼즈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EBS 초대석
13:00 지식채널e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4:30 꼬마버스 타요(재)
15: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5:45 출동! 슈퍼윙스(재)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4(재)
16:15 세미와 매직큐브
16:30 딩동댕 유치원1~2(재)
17:00 EBS 뉴스
17:20 명탐정 피트
17:30 페파 피그(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5
19:00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20:40 세계테마기행
〈파란 나라 필리핀 3부〉
21:30 한국기행
〈나무에 취하다 3부
나의 낙원으로 놀러오세요〉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55 EBS 초대석
24:50 글로벌 특선다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2일(음 5월 10일 庚辰)

子 36년생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판국에 놓여 있다. 48년생 대단하지는 않다. 60년생 폭염 속에서 폭우가 쏟아짐에 비유할 만하다. 72년생 순기능이 극대화 되면서 발전된 양상을 띠게 된다. 84년생 평소에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니 잘 살펴라. 행운의 숫자 : 23, 44

丑 37년생 매끄러워야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느니라. 49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무난하다. 61년생 적절한 시기에 정확히 실행해야 작용력이 크다. 73년생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성숙함을 보일 때다. 85년생 기대치에는 못 미치더라도 괜찮은 편이다. 행운의 숫자 : 01, 84

寅 38년생 번거롭다면 가차 없이 치워버려도 무방할 것이니라. 50년생 어렵사리 얻은 것이 결과적으로 거추장스러워지겠다. 62년생 만전을 기하라. 74년생 객관적이지 못해서 사실상 이루어질 가능성은 약하다. 86년생 어두운 동굴 속 같은 비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9, 22

卯 39년생 좀 더 세분화한다면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51년생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63년생 망실될 수도 있으니 관리를 잘 하라. 75년생 관련시킨다면 문제점이 생긴다. 87년생 천지의 기운이 조응하니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다. 행운의 숫자 : 19, 07

辰 40년생 빈 틈 없는 계획을 수립하라. 52년생 계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64년생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 성과를 도출 하겠다. 76년생 우려해 왔던 형세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88년생 새로운 결과가 형성 될 수 있는 국면이다. 행운의 숫자 : 56, 82

巳 41년생 가파른 낭떠러지에 서 있는 판세에 비유할 만하다. 53년생 좋은 날을 맞이한다. 65년생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면서 혼란스러워지리라. 77년생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뜻 깊은 체험이 될 것이다. 89년생 정신적 휴식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38, 69

午 42년생 사소한 것에서 단처가 생긴다. 54년생 기본적인 본분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66년생 파격적인 방향으로의 선회가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 78년생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다. 90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적 대상에 집중하라. 행운의 숫자 : 61, 30

未 43년생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던져라. 55년생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면 궁극적으로 해결되리라. 67년생 서서히 안정 궤도에 진입하는 형상이니라. 79년생 장소의 선정도 잘 해야 하느니라. 91년생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비롯됨을 알라. 행운의 숫자 : 55, 14

申 44년생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롭다는 것을 알라. 56년생 특징을 잘 파악한다면 형국을 주도 할 수 있게 된다. 68년생 지금이라도 반전시키는 것이 낫다. 80년생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는 법이다. 92년생 자신이 없다면 행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90, 32

酉 45년생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57년생 당시의 의사 표시가 분명해야만 한다. 69년생 본연에 충실하라. 81년생 여유를 갖고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93년생 진보는 없지만 무탈한 하루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33

戌 34년생 순간의 착각이 커다란 병폐를 낳을 수도 있다. 46년생 전문성이 확보 되지 않으면 문제점을 낳는다. 58년생 경험에 비추어 냉정하게 판단함이 옳다. 70년생 배려에 힘입어 풍성함을 누리는 운로이다. 82년생 능력에 맞는 계책과 방안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85, 98

亥 35년생 상대의 발언에는 다중적 의미가 내포 되어 있다. 47년생 후일을 도모하라. 59년생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습하기 힘들어진다. 71년생 너무 쉬워서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다. 83년생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6, 6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